

영암군, 청년 6주 살기 '기가마을' 입주환영회에 메타버스 도입



영암군과 영암청년창업몰에 입주해 있는 문화창작소(대표 김정관)가 '청

영암서 농사 짓지 않아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귀촌 한옥 펜션 가상공간에 옮겨와 아바타 통해 첫 인사

년 6주 살기' 프로젝트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기가마을 입주환영회' 행사를 메타버스(가상의 공간)에서 진행했다. '영암 월출산의 기운이 넘쳐나는 마을, 지친 청년들이 기운을 받아가는 곳'이라는 슬로건으로 프로젝트를 명명 '기가마을'이라 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가 아니어도 인터넷만 되는 곳이면 어디든 자기 일을 하며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 디지털-노마드(유목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의미로 '기가(Giga)'라는 단어에 담고 있다. 이렇게 모인 청년들이 영암으로 와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귀촌하여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도전을 통해 귀촌 가능성을 실험해 본다.

올해에는 2회차의 6주 살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1회차는 도포면 황금들 애센터에서 운영되고, 2회차는 10월 즈음 모정마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2일, 1회차에 7명의 다양한 개성을 가진 청년들이 각자의 포트폴리오와 다짐을 담은 영상을 담아 지원하여 입주자격을 얻어 선정되었다. 이렇게 모인 청년들이 처음 인사를 나누는 곳은 메타버스(가상의 공간)이었다. 실제 영암군 소재에 있는 전통한옥 펜션의 모습을 그대로 가상공간으로 옮겨와 마당에 무대를 세우고, 파티장

을 꾸며놓았다. 전국 각지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가상공간에서 처음 만나 자신이 꾸민 아바타를 통해 서로 인사도 나누고 함께 사진을 찍은 후 설치된 무대로 한명씩 올라가 자신의 소개를 하는 시간도 가지며 잊을 수 없는 첫 만남을 가졌다. 영암군 관계자는 "6주 살기에 참여한 청년들이 영암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많이 전해왔다. 영암을 제2의 고향이라 생각하고 찾아온 청년들에게 영암군에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무안군, 전국 최초 주민세 감면...코로나19 위기극복 동참

개인분 전액·사업소분·종업원분 50% 등 총 10억 1300만원 감면...4만 세대·사업장 5500곳 대상

무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2021년도 주민세를 대폭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앞장섰던 무안군은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자 군세감면 조례를 개정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8월 전국 최초로 2021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전체를 대상으로 감면을 추진한다. 주민세 개인분 1만 1천원은 모든 세대에 전액 면제되고,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50% 감면된다. 군은 감면코드 신설 등 주민세 감면 준비가 완료되면 8월 초 주민 전체 4만 세대와 전체 사업장 5500곳에 감

면통지서와 감면세액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며, 감면 금액은 10억 13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김산 군수는 "주민세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를 돕는 납세자 중심의 조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해풍맞은 '신안 섬 단호박' 일본 수출

비타민 B·C 다량 함유...항암효과·노화방지 등 웰빙식품 각광



신안군에서는 청정지역 게르마늄 토질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맛과 품질이 좋은 2021년산 단호박 300톤을 일본에 수출한다.

신안에서는 지도, 안좌, 하의, 신의, 장산 등 77ha에서 100여농가가 단호박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지도읍에서 생산된 단호박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일본에 수출되고 있다. 신안 단호박은 비타민 B와 C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어 칼슘·무기염류·당질이 풍부하며 항암효과, 노화방지, 변비 등에 좋은 웰빙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다이어트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국내 소비자는 물론 일본에서도 큰 각광을 받고 있다. 올해 신안군은 단호박을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자대, 멀칭비닐, 단호박세척기 등 자체사업으로 1억 8천여만원을 지원하였다. 박우량 군수는 기계화와 재정적 지원으로 신안 단호박을 지역특화품목으로 지속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안=이덕주기자

함평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강화교육 실시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정착·효과적 운영 도모



함평군은 15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실과소장, 읍면장 등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 하경환

주민자치지원과장을 초빙,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의 이해와 읍면 기능의 확대 필요성 등 2022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은 최일선의 행정단위인 읍면사무소 기능을 복지와 주민자치 중심으로 개편,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사업이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주민 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며 주민이 만드는 자치, 공동체가 함께하는 복지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함평=김평훈기자

영광군, 여름철 대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실태 집중점검...30일까지 2주간

영광군은 야외활동이 활발한 여름방학을 맞아 부모와 아이가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7월을 안전점검의 달로 지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기간은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이며 군내 주택단지 27개소, 어린이집 12개소 등 총 55개소다. 점검대상은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시소, 바닥재 등 다양한 어린이

놀이시설이며 운영상태, 바닥재의 균열·훼손, 나사의 풀림, 요철의 상태 등 파손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관리주체의 점검주기별 자체점검 실시 여부, 정기시설검사 실시 여부,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이행 여부 등의 관리주체 안전관리의무 이행 사항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영광=서희권기자

목포시, 양성평등 문화 확산 UCC 공모전 개최

목포시가 2021년 양성평등 주간(9.1~7)을 맞아 생활 속 성평등을 실현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범시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목포시 양성평등 문화 확산 영상(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양성평등에 관심있는 전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 기간은 7월 19일부터 8월 19일까지이다. 응모자는 출품작(1~3분 이내 동영상 파일)과 함께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kakim1@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목포=박정수기자

2021년 완도 해양치유산업화 원년

해양치유, 깨끗한 해양환경과 다양한 해양자원을 이용해 몸과 마음 치유하는 건강증진활동

해양치유산업 완도군이 선도합니다!